

피에르 라비의 생태 사상 연구

송태현*

【요약】

본 논문은 프랑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운동가 가운데 한 명인 피에르 라비의 생태 사상을 연구한다. 본 연구는 우선 라비의 삶과 사상 형성 과정을 개관한다. 연후에 그가 현대의 기계적 자연관과 관행 농법을 비판하면서 ‘어머니 대지’ 관념에 토대를 두고 제시한 ‘농업 생태론’을 고찰한다. 이어서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현대 문명에 대한 라비의 진단과 그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한 ‘탈성장’과 ‘단순한 삶’이 과연 무엇이며 또한 그의 관점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는 라비 사상의 한계와 그의 공헌을 제시한다. 그는 정연한 생태이론을 제시한 사상가도 아니며 탈성장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상가도 아니라는 한계를 지닌다. 라비의 주된 공헌은 농업 생태론’을 국내적으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하고, 책과 강연을 통해, 그리고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단체들을 설립하고 주도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새로운 문명을 위한 생태적 비전에 동참하게 한 점이다.

【주제어】 피에르 라비, 농업생태론, 탈성장, 소박한 삶, 행복한 절제

*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부교수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1S1A5B8096301)

<https://doi.org/10.34162/hefins.2022..29.007>

I. 서론

2021년 12월에 타계한 피에르 라비(Pierre Rabhi, 1938-2021)는 프랑스의 가장 영향력 있는 환경운동가 가운데 한 명이었다. 그는 아프리카의 전통문화와 유럽의 현대 문화를 경험한 프랑스 생태 농업 선구자로서 프랑스뿐 아니라 유럽과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 생태 농업을 널리 전수한 활동가였다. 그는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기존의 농업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생태주의자가 되었고, 자연과 문명의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사상을 모색한 농부 사상가이자 농부 작가이다. 라비는 관행 농법과는 다른 친환경 농법을 제시했을 뿐 아니라, 현대 문명이 계속 진행된다면 인류는 과연 어떠한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가를 성찰하면서 지속 가능한 대안 사회를 제시하였다. 라비는 자신이 개발한 생태 농업을 널리 보급하고 또한 생명을 존중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한 가치관을 확산하며 오늘날 진행되는 전 지구적인 생태 위기에 직면하여 책임 의식을 호소한 환경운동가이다.

생태 농업을 실천한 농부이면서 환경운동가이고 또한 생태 사상가이며 작가라는 점에서 라비는 미국의 웬델 베리Wendell Berry와 비견되는 인물이다. 라비와 베리는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현대 문명에 대해 성찰하는 작가이자 생태운동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두 작가는 오늘날 진행되는 생태 위기와 문명 위기의 중심에 농업 위기가 있다고 생각하며 농업 문제를 중심에 두고 현대 문명을 성찰할 때 그 위기를 적절하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국내에서 웬델 베리에 대한 연구 논문은 꽤 많이 축적이 되어 있으나 피에르 라비에 대한 논문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이 논문은 그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피에르 라비를 다루는 최초의 논문이기에 우선 라비의 삶과 사상 형성 과정을 개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후에 그가 현대의 기계적 자연관과 관행 농법을 비판하면서 ‘어머니 대지’ 관념에 토대를 두고 제시한

‘농업 생태론’을 고찰한다. 이어서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 현대 문명에 대한 라비의 진단과 그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한 ‘탈성장’과 ‘단순한 삶’이 과연 무엇이며 또한 그의 관점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생태 사상이 지니는 의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피에르 라비의 삶과 사상 형성 과정

피에르 라비는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의 남부 사막 지대에 있는 오아시스인 케낫사(Kenadsa)에서 태어났다.¹⁾ 그가 네 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대장장이였던 아버지와 함께 살던 중에, 당시 알제리에 정착해 있던 프랑스인 교사 부부가 라비를 입양하고자 하였다. 이에 아버지는 아들과 계속 연락할 수 있고 방학 기간에는 오아시스로 돌아온다는 조건으로 입양을 승낙했다. 알제리인이자 이슬람 가정에서 자랐던 라비는 이후 프랑스인 가톨릭 신자 가정에서 두 문화 사이의 갈등을 느끼며 알제리에서 성장하게 된다. 알제리 독립전쟁(1953-1961) 기간 중에 라비는 열렬한 드골 장군 지지자였던 양아버지로부터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길거리로 내몰린다. 홀로 파리로 가서 힘든 노동자 생활을 하던 라비는 직장에서 미래의 아내를 만나 함께 귀농을 결심한다.

파리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라비는 자본주의와 물질주의에 침윤된 현대 문명을 성찰하기 시작한다. 고된 노동의 피로와 싸우며 다양한 사상서를 읽어나가던 그는 새로운 문명을 꿈꾸게 된다.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 더 많은 부(富)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윤과 부를 위해 처절한 경쟁을 하며 비인간화의 길을 걷는 도시 문화를 떠나 라비는 농업에서 새로운 삶을 찾하고자 했다. 그는 프랑스 남부의 세벤 지역에 있는 시골 마을 아르데슈(Ardèche)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는다. 당시 그 마을은 전기도 상수도도 없던

1) 라비의 삶과 사상 형성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Rabhi (2021), pp. 13-264. ; 피에르 라비, 길잡이 늑대 역 (2011), pp. 8-62.

의판 마을이었고, 그가 구입한 농장은 자갈이 많은 척박한 땅이었다.

농장 구입을 위한 용자 조건으로 은행 측은 농업학교 졸업증을 요구했기에 라비는 농업기술학교 과정을 이수한다. 그런데 그는 이 학교에서 크게 실망하게 된다. 당시 농업학교는 화학 비료와 화학 농약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라비 주위의 농촌 마을에서도 화학 농업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라비는 독성이 강한 농약을 식물과 토양에 뿌리면 그 농약이 벌레를 죽일 뿐 아니라 토양도 오염시키며 심지어 사람들에게도 해를 끼치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 농촌에서도 생산성 추구가 가장 중요한 목표였고 이를 위해 프랑스 농부들은 화학 농법을 실행하고 있었다.

자본주의와 물질주의를 피해 농촌으로 왔지만 농촌 역시 자본주의 가치관에 물든 현실을 목도한 라비는 농업을 포기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농법을 찾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다. 문제는 독한 화학 농약과 화학 비료에 의존하는 관행 농법과 다른 방식의 농사를 과연 어떻게 지을 것인가이다.²⁾ 자연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자연을 존중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상황에서 라비가 만난 농법이 ‘생명역동농법’이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의사이자 환경생태학자인 피에르 리샤르 Pierre Richard가 오스트리아 농학자 에렌프리트 파이퍼 Ehrenfried Pfeiffer의 『풍요로운 대지 *Fécondité de la terre*』라는 책을 라비에게 전해 주었다. 파이퍼는 ‘생명역동농법’의 창시자인 루돌프 슈타이너 Rudolf Steiner의 제자로서 현대적인 화학 농업이 환경 파괴적이고 토양을 산성화시키며 땅의 생명력을 앗아 간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던 학자로서 소위 ‘친환경 농사’를 실천해온 농부 학자였다.³⁾

라비는 ‘생명역동농법’을 접한 후 다양한 친환경 농법을 연구하고 아르

2) Rabhi (2005), pp. 36-37.

3) Rabhi (2005), p. 37.

데슈에 있는 자신의 밭에서 실험을 거듭하였다. 땅도 척박하고 물도 모자라는 농장에서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 라비가 특별한 관심을 가진 것은 퇴비 만들기였다. 그는 화학 비료가 보편화되기 전에 농촌에서 오랫동안 활용해온 전통적인 퇴비 제조법을 한층 더 발전시킨 ‘호기성 퇴비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은 산소를 이용하여 미생물 번식을 촉진시키고 그 미생물이 발효 효소와 세균성 효모 기능을 하며 토양과 식물을 위한 영양분을 만들어 내게 하는 농법이다.⁴⁾

척박하고 메말랐던 땅에 적절하게 발효시킨 유기물 퇴비를 공급해 주는 농업을 통해 그는 흙의 중요성과 아울러 한 알의 씨앗이 피워내는 생명의 경이로움에 눈뜬다. 땅이 죽으면 땅은 더 이상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고 그 결과 씨앗을 받아시켜 식물이 자라게 할 수가 없다. 반면에 좋은 토양에 뿌려진 씨앗은 잘 자라난 식물이 되어 그 옆으로 열매로 혹은 뿌리로 많은 생명체를 살려낸다.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지으면서 땅과 생물, 나아가 환경과 생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킨 라비는 자연스럽게 생태론과 생태 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III. ‘어머니 대지’로의 귀환과 농업 생태론

피에르 라비가 아르데슈에 정착한 것은 20대 초반인 1961년의 일이다. 라비가 농촌에 정착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환경에 대한 논의에서 기폭제가 된 사건은 미국의 동물학자이자 작가인 레이철 카슨 Rachel Carson이 저술한 『침묵의 봄 Silent Spring』의 출판(1962)이다. 이 책에서 카슨은 ‘해충’을 죽이기 위해 뿌린 살충제가 공기나 물 혹은 흙에 퍼져 그 살충제에 노출된 생물체의 몸속으로 점점 스며들어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따라 결국 인간을 포함한 상위의 생물체도 치명적인

4) 피에르 라비, 길잡이 늑대 역 (2011), pp. 40-41.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1950년대 이후로 소위 ‘녹색 혁명Green Revolution’을 표방하면서 다량의 화학 비료와 화학 살충제를 사용함으로써 농업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시도한 화학 농업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라비는 생산 제일주의에 심취한 화학 농업과 기계 농업을 벗어나 대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토대를 둔 친환경적인 농업을 제안한다. 대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란 사실상 대지에 대한 오래된 과거의 인식으로서 대지를 어머니로 대하는 태도이다. ‘어머니 대지’에 토대를 둔 새로운 농업 역시 현대화 이전의 농업을 부활시킨 것이지만 이는 단순히 과거로 회귀하는 농업은 아니다. 라비가 제안하는 생태 농업은 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에서 발전시켜온 다양한 전통적인 농법을 현대 과학과 대화하면서 개발한 농업이다.

대지를 어머니, 여신 혹은 대지모신大地母神으로 간주해온 것은 많은 전통적인 문화에서 공통적인 요소이다.⁵⁾ 근대 서양에서 과학혁명이 진행되면서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통적인 유기체론에서 기계론으로 변화하기 전까지, 대지는 모든 생명체를 낳고 양육하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이면서 신성한 존재로 인정받아 왔다. 20세기에 들어와서도 영국의 과학자 러브록 James Lovelock이 지구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자기 조절 능력을 지닌 유기체라는 ‘가이아 이론Gaia theory’을 발전시킨 바 있다.⁶⁾ ‘가이아’란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으로서 만물을 낳고 양육하는 신이다. 동서양의 고대 문화는 자연을 살아 있는 유기체로, 나아가 만물을 양육하는 어머니 혹은 여신으로 간주하였다. 피에르 라비도 ‘어머니 대지Terre-Mère’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라비에 의하면, “태곳적부터 인간은 어머니 대지를 찬양했고, 어머니 대지에 경의를 표하며 시를 읊었다.”⁷⁾

5) Eliade (1983), pp. 208-209.

6) 제임스 러브록, 홍욱희 역 (2017), p. 9.

7) Rabhi (2010), p. 21.

자연을 유기체로 간주하는 사유는 근대에도 어느 정도 지속되어 왔다. 그 대표적인 학자는 이탈리아의 브루노Giordano Bruno이다. 그는 세계가 무한하며, 그 세계는 자체로 충족된 세계로서 무한성 속에 신을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⁸⁾ 브루노를 비롯한 학자들이 전통적인 유기체적 자연관을 계승한 반면에, 또 다른 근대사상가들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 이들은 자연을 살아있는 유기체가 아닌 기계 장치로 간주하는 기계론적 자연관을 발전시켰다. 이 시기의 자연관 혁명에서 대표적인 학자인 데카르트 René Descartes는 자연계를 인간과 인간 이외의 존재로 양분하고서 인간 이외의 동식물은 기계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철학자는 인간을 ‘자연의 주인과 소유자*maîtres et possesseurs de la Nature*’로 규정한다. 그는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자 소유자’가 되는 것이 수많은 기술 발명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⁹⁾ 이러한 데카르트의 관점은 실제로 과학 기술의 발전에 유리한 토대를 제공했으며 인간의 자연 지배도 공고하게 하였다. 과학사가 호이카스R. Hooykaas가 지적하듯이 기계론적 자연관은 자연의 신격화에 의해 야기된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기여했다.¹⁰⁾ 자연을 신적인 유기체로 간주하는 관점은 자연을 탐구하고 개발하는 데 방해가 되어 온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데카르트의 이러한 자연관은 그 후에 진행된 환경파괴에 대한 책임도 어느 정도 지닐 수밖에 없다. 피에르 라비는 인간이 대지의 주인이 아님을 강조한다. 인간은 대지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의 큰 전체 속에서 대지와 상호 연결된 존재이다. 라비는 ‘어머니 대지’라는 관념을 제시함으로써, 대지를 단순한 무기물에 불과한 존재로 간주하고서 거리낌 없이 대지를 착취하고 대지에 독한 화학물질을 살포해온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대지에 대해 현대의 주류 관점과는 다른 시각을 갖기를 촉구한다.¹¹⁾

8) Lenoble (1969), p. 329.

9) Descartes (1966), p. 84.

10) R. 호이카스 (1987), p. 78.

11) 피에르 라비, 길잡이 늑대 역 (2011), p. 71.

인간은 자신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를 높여왔다. 지적인 측면에서 인간이 자연계에서 가장 우월한 생명체인 것은 분명하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생명의 경이를 예찬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인간은 자연계에서 가장 ‘잔인한 존재’이기도 하다.¹²⁾ 인간은 전쟁을 통해 동료 인간을 무차별적으로 살상하기도 하고 고문을 통해 인간 존엄성을 짓밟기도 할 뿐만 아니라, 타 생명체를 살상하기도 하며 타 생명체에게 고통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인간의 비극적인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라비는 자연의 신성, 대지의 신성, 생명체의 신성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라비는 ‘대지는 만물의 어머니’라는 말이 단순한 수사법이 아닌 객관적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어머니가 아이에게 모유를 먹여주듯이, 대지는 지구의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이다.¹³⁾ ‘어머니 대지’ 관념은 농부에게 관행 농업에 대해 반성하게 하고 새로운 농법이 필요함을 호소한다. 대지를 어머니로 인정한다면 농부는 위험한 살충제나 강한 화학 비료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농부는 대지를 어머니로 존중해야 하며, 대지가 인간을 먹이는 것처럼 인간도 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어머니 대지가 죽으면 인간도 더 이상 영양분을 섭취할 수 없다.¹⁴⁾ 라비에 의하면, 현대적 농업인 화학 비료와 화학 살충제 중심의 화학 농업은 토양의 부식토를 파괴하고 땅속의 생태학적 불균형을 야기하고 수질을 오염시킨다.

이러한 관행 농법을 극복하기 위해 라비는 ‘농업 생태론agroécologie’을 주창한다. 라비가 타계했을 때 많은 프랑스 언론들이 그를 프랑스 ‘농업 생태론의 선구자’로 평가했다. 사실 ‘농업 생태론’은 라비 이전부터 존재해온 용어이다. 이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러시아의 농학자인 벤신B.M. Bensin으로서, 그는 상업적 작물 식물에 대한 연구에서 생태학적 방법의

12) 피에르 라비, 길잡이 늑대 역 (2011), p. 71.

13) 피에르 라비, 길잡이 늑대 역 (2011), p. 32.

14) Rabhi (2005), p. 66.

사용을 기술하기 위해 1928년에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¹⁵⁾ 이후 이 용어는 독일, 미국, 브라질, 프랑스 등 다양한 나라에서 사용되었는데, 사용자에 따라 그 의미가 어느 정도 다른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피에르 라비는 ‘농업 생태론’을 농업 방식과 생명 윤리를 결합한 포괄적인 대안으로 규정한다. 화학 농업으로 인해 대지가 기력을 다해가는 처참한 현실에 직면하여, 그는 농업 생태론을 통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가운데 대지를 재생시키기 위한 자연적인 해법을 제시한다.¹⁶⁾ 그는 농업 생태론이 자연의 법칙에 근거한 기술technique로서 이를 통해 농업이 단지 기술에 한정되지 않고 진정한 생태와 결합하는 전체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⁷⁾ 라비의 농업 생태론은 수자원 관리, 산림녹화, 침식방지, 생물 다양성, 지구 온난화, 경제 및 사회 체계, 인간이 환경과 맺는 관계 등을 통합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농업 생태론을 실행하면 토양을 비옥하게 하고, 사막화를 방지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물의 사용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된다. 라비는 농업 생태론이 인류의 생존에 필요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형태의 삶을 존중하는 것이기에 농부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임을 강조한다.¹⁸⁾ 라비는 자신이 주창하는 농업 생태론의 주된 요소를 다음 10가지로 제시한다.¹⁹⁾

- ① 토지의 구조를 완전히 뒤엎지 않는 경작
- ② 녹비 및 퇴비를 기반으로 한 유기 비료
- ③ 자연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분해되는 제분과 기생충 및 잠복성 질병 퇴치에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사용하여 가능한 한 자연적인 식물 병충해 방제

15) Wezel et als. (2009), pp. 503-504.

16) Rabhi (2010), p. 137.

17) Rabhi (2008), p. 67.

18) Rabh (2008), pp. 67-68.

19) Rabhi (2002). 여기서 소개하는 10가지 항목은 원래 내용을 연구자가 축약한 것임.

- ④ 토착 식물종(種)의 개발과 다양한 지역에 가장 적합한 품종의 적절한 선택
- ⑤ 경제적이고 가장 적절한 방식의 농업용수 사용
- ⑥ 필요에 따라 인간, 동물, 기계를 활용하는 가장 균형 잡힌 에너지 사용
- ⑦ 빗물을 최대한 활용하고 토양 침식과 범람을 방지하고 우물과 샘을 유지하게 하는 지하수를 공급하기 위한 지표면 침식방지 작업(제방, 소형 댐, 여과 제방 등)
- ⑧ 바람으로부터 토양을 보호하고 재배 식물의 성장, 동물 복지, 유용한 보조 동식물의 유지에 유리한 소규모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생물타리 설치
- ⑨ 연료, 약재(藥材), 예술 및 공예, 인간 및 동물의 양식, 토양 재생 등을 위해 다양한 종을 활용하여 이용가능하지만 황폐해진 지표면의 재조립
- ⑩ 환경의 경제적이고 생태적인 관리에 적합한 전통적 노하우의 회복

라비의 농업 생태론은 대지를 대하는 이전의 사고방식을 바꾸어 대지를 수익성이라는 단 한 가지 관점으로 보는 것을 중단하게 하며, 농업을 시장 논리와 무한한 이윤 추구의 도구로 보는 관점을 중단하게 한다. 나아가 농업 생태론은 대지가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대지에 속해 있음을 가르친다. 농업 생태론은 더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 땅을 오염시키고 동시에 인류를 오염시키는 방법이 아닌, 조화로운 속에서 땅을 경작할 다른 방법이 존재함을 가르친다.

피에르 라비는 다양한 독서와 농사 경험을 통해 발전시킨 농업 생태론을 프랑스와 유럽, 나아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에 보급했다. 북아프리카 알제리 출신인 라비는 아프리카가 화학 비료와 화학 살충제를 마련할 재원이 부족한 현실에 처해 있음을 고려하여 자신의 친환경 농법을 확산하는 데 열의를 보였다. 또한 현실적으로 화학 농법을 감당하기 힘든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도 라비의 농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라비는 친환경 농업을 국제적으로 보급할 뿐만 아니라 생태 운동을 확산하는 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그의 노력은 여러 단체의 설립과 활동으로 결실을 맺었다. 1999-2000

년에 라비는 ‘대지와 휴머니즘Terre & Humanisme’이라는 단체를 창설하여 친환경 농업과 환경 윤리를 교육하였다. 2003년에는 ‘레 자마냉Les Amanins’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이후 ‘농업 생태론 센터’를 설립하고 생태 농업을 실시하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하며, 친환경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실천과 교육의 공간으로 발전시켰다. 또한 2007년에는 ‘콜리브리 Colibris’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소유의 욕심보다 존재의 행복”을 더 중시하는 사회 건설을 위해 각 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행동하면서 대안 사회를 모색하는 교류의 장으로 삼고자 하였다.²⁰⁾

IV. 현대 문명 진단과 처방: 탈성장과 소박한 삶

전 세계적으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침묵의 봄』이 출간된 이후에 환경문제에서 국제적인 관심을 이끈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은 1972년에 제출된 ‘로마클럽 프로젝트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The Limits to Growth』이다. 이 책은 천연자원의 고갈, 공해로 인한 환경 오염, 폭발적인 인구 증가, 급속한 공업화, 군사 기술 발전에 의한 대규모 파괴력 위험 등으로 인해 인류의 위기가 임박해 있다고 진단한다. 기존의 삶의 패턴을 유지할 경우 인류 문명이 존립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기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류 사회는 성장의 한계를 인식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해야 한다고 저자들은 역설한다. ‘로마클럽 프로젝트 보고서’가 제출된 시기와 같은 해에 개최된 학술대회에 발표한 논문에서 노르웨이의 철학자 아르네 네스Arne Naess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나친 개발과 간섭이 심각한 생태계 위기를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그 위기의 근저에 있는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생태중심주의’를 표방하는 ‘심층 생태론deep ecology’을 주장하였다.²¹⁾ 이듬해인 1973년에

20) Rabhi (2010), pp. 125-128.

출간된 슈마허 E. F. Schumacher의 『작은 것이 아름답다 *Small is Beautiful*』는 환경 위기에 대해 인류를 각성시킨 중요한 저작으로서 『성장의 한계』가 예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 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환경문제는 단순한 공해문제가 아니라 산업사회가 추구해온 경제 발전 논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 형성에 기여하였다.²²⁾ 경제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만 현대 사회는 성장지상주의 이념 속에서 자연환경을 성장 수단으로 간주한다. 슈마허는 ‘성장을 위한 성장’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기존의 경제 질서를 비판하면서 그 대안으로 ‘인간의 얼굴을 가진 경제’를 제시하였다. 이 경제 관념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스스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정도의 경제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쾌적한 자연환경과 인간의 행복이 공존하는 경제구조를 확보할 수 있다.²³⁾

피에르 라비도 근대화 이후 진행된 인간의 지나친 개발이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였다는 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장’의 문제를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라비는 인류 문명이 난관에 봉착했으며 이대로 가면 전 지구적인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지구라는 생명 권역을 관리하는 인류가 지구의 자원을 마구 사용하고 물과 땅과 공기를 심각하게 오염시키고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비는 생태 문제가 기아飢餓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고 파악한다. 그는 생태 위기와 기아가 인간의 욕심, 특히 부자와 부유한 나라의 무제한적인 욕심에 기인한다고 본다. 라비는 전 세계 곳곳에서 굶주리는 이들이 많이 존재하는 것이 과도한 인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구는 많고 식량은 적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기준으로 식량은 넘쳐나지만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굶주리는 이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서양에서는 쓰레기통

21) Naess (1995), pp. 3-9.

22) 김종철 (2022), p. 123.

23) E. F. 슈마허, 이상호 역 (2010), p. 17.

에서조차 먹을 것이 넘쳐나지만 가난한 나라들의 빈자는 기아에 허덕인다. 라비는 부유한 개인과 부유한 나라가 한정된 자원을 독점하고 움켜쥐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풍족한 지구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주장한다.²⁴⁾

그동안 인간이 살아온 방식이 이 세상을 위기에 몰아넣으리만큼 잘못된 것이기에 라비는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한다.²⁵⁾ 그는 현재의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면 지구는 종말에 이를 수밖에 없으며, 지구의 멸망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고 보았다.²⁶⁾ 산업혁명 이래로 인류 사회는 매우 큰 성장을 이룩했다. 많은 이들은 영원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러한 성장을 추구해왔으며, 지금대로 살아가도 지구의 종말은 오지 않거나 설령 오더라도 먼 미래에 오리라 생각한다. 미래를 걱정하여 당장 성장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들은 생각한다. 그런데 라비는 이러한 낙관론에 찬동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우리가 그동안 걸어온 대로 계속 걸어가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에 현행의 시스템을 재고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야 함을 역설한다.²⁷⁾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 라비에 따르면, 우리는 우선 ‘성장의 한계’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끝없는 성장을 추구한다면 이 지구는 수질오염, 토양오염, 삼림 파괴, 자원 고갈 등을 초래하여 결국은 인류 자신도 멸절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세계 인구는 증가하고 지구의 자원은 점점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지구 자원을 착취하여 경제를 성장시키는 ‘서구의 모델’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한 지구는 점점 더 심각하게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 라비는 인류가 살아남고 지구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탈성장*décroissance soutenable*’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²⁸⁾

24) 피에르 라비, *길잡이 늑대* 역 (2011), pp. 136-144.

25) Rabhi (2005), p. 154.

26) Rabhi (2005), p. 174.

27) Rabhi (2005), p. 171.

28) Rabhi (2010), p. 97.

‘탈성장’ 개념은 라비 이전에 생물경제학자이자 생태경제학자인 니콜라스 조르제스쿠-뢰겐(Nicholas Georgescu-Roegen)과 정치 생태학의 선도자인 앙드레 고르(André Gorz)가 발전시킨 개념이다. 고르는 1977년에 출간한 책에서 한정된 자원을 계속 소비하면 결국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상식을 가진 경제학자는 조르제스쿠-뢰겐이 유일하다고 지적한다.²⁹⁾ 고르는 더 이상 성장이 없는 제로 성장 상태도 자원 고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고르에 의하면, 미래 세대를 위해 아직 남아 있는 자원을 보전하는 유일한 방법은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것이며, 지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는 물질 생산에서 탈성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라비는 조르제스쿠-뢰겐이 제안한 ‘탈성장’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더 많은 부를 추구하며 무제한 성장을 맹신하는 소수들이 지금과 같이 자원을 계속해서 채굴한다면 자원 고갈은 기하급수적인 속도로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한 조르제스쿠-뢰겐에게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경제는 절제와 더불어 행복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는 점 역시 라비의 관점과 상통하는 견해이다.³⁰⁾

라비는 건전한 탈성장을 위해서는 소비를 줄여야 함을 역설한다.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풍요로운 소비를 추구해온 사람을 라비는 ‘방화범’에 비유한다.³¹⁾ 그 방화범은 지구라는 행성에다 불을 지르고 지구를 마구 파괴해 온 사람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고도성장을 추구하면서 그런 행동을 정당화하고 용인해왔다. 하지만 오늘날 생태 위기 시기에 정작 필요한 사람은 그 불을 진화하려고 노력하는 ‘소방수’이다. 라비는 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소방수, 즉 지구를 구하기 위해 소비를 줄이는 ‘단순한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이 적은 현실을 안타까워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형성된 이윤 추구의 논리와 성장 추구의

29) Gorz (1977), p. 13.

30) Rabhi (2010), p. 97.

31) Rabh (2005), p. 154.

논리와 단절하고 라비는 생명 중심의 논리를 추구한다. 라비는 생명 중심의 논리와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성장 추구의 논리는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자연에 대한 파괴를 일삼는 현대 문명의 가치관과 단절해야 한다.³²⁾ 라비에 의하면 지구는 단순히 우리가 갈취할 ‘자원의 보유창고’가 아니라 귀중한 ‘삶의 오아시스’이다. 그는 지구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매우 급진적인 주장을 한다. 라비는 숲, 우리에게 양식을 제공해주는 토양, 물, 종자, 어로漁撈 자원 등은 금전 투기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귀중한 지구의 자산이 돈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³³⁾ 라비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던 원주민 부족이 자연을 파괴해온 소위 ‘문명인’의 행동 양식을 관찰하고서 다음과 같이 예언한 것을 주목한다.

오직 마지막 나무가 베임을 당한 후에야,
 오직 마지막 강물이 오염되고 난 후에야,
 오직 마지막 물고기가 잡히고 난 후에야,
 오직 그때에야 비로소 당신은
 돈이란 먹을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³⁴⁾

라비는 우리의 의식과 생활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그동안 현대 문명은 풍요로운 사회를 예찬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대량 생산과 소비를 강조해왔다.³⁵⁾ 현대인은 필요한 재화의 소비를 위해 생산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생산을 위해 소비를 유도하기도 하고, 소비시장이 과포화 상태가 되어 더 이상 내부에서 다 소비하지 못해 재고가 쌓이면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새로운 소비시장을 창출하는 등 인간의 으름가는 행위가 소비하는 행위인 현실을 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대인을 가장

32) Rabhi (2010), p. 133.

33) Rabhi (2010), p. 100.

34) Rabhi (2010), p. 100.

35) Rabhi (2010), p. 106.

적절하게 규정하는 표현이 ‘호모 콘수무스Homo Consumus’, 즉 ‘소비하는 인간’이다. 그 결과는 오늘날 우리가 목도하는 쓰레기 대란, 환경 오염과 기후 위기이다.

인간의 물질적 욕심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와 소비사회에 저항하면서 라비는 ‘의식의 반란insurrection des consciences’을 호소한다.³⁶⁾ 물질과 돈의 노예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박함’과 ‘절제’의 가치를 회복해야 한다. 소박한 삶을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시도들이 사회 전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그에게는 절제된 삶이야말로 기쁨의 원천이다.³⁷⁾ 절제와 관련하여 라비는 사자와 인간을 비교한다. 사자는 동물을 사냥하되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만 사냥한다.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는다. 배가 부름에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을 사냥하여 창고에 산더미로 쌓아놓고 한 마리씩 빼내어 먹는 사자는 없다. 반면에 인간세계에서는 강자가 약자를 약탈하고 재화를 독차지하는 상황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³⁸⁾ 라비는 전통적인 인디언의 절제하는 삶에도 주목한다. 인디언들은 눈앞에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며 동물을 사냥할 때도 욕심을 내지 않고 필요한 만큼만 사냥한다.³⁹⁾

라비는 오늘날 농촌의 현실도 현대 사회가 추구하는 물질주의의 지배에 굴복한 상태라고 판단한다. 서구의 농민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장제일주의와 수익성의 논리에 이끌려 자본주의 시장 속에 편입되었다. 농부 사상이 라비는 절제된 삶과 자연에 대한 존중을 기반으로 대지와 조화로운 관계를 맺는 일이 농민들 자신의 생존뿐 아니라 그들의 존엄성을 확보해준다고 주장한다.⁴⁰⁾

36) Rabhi (2010), pp. 113-117.

37) Rabhi (2010), pp. 99-112.

38) Rabhi (2005), pp. 197-198.

39) Rabhi (2005), p. 274.

40) Rabhi (2010), p. 27.

라비에게 탈성장과 소박한 삶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긴밀하게 결부되어 있다. 여기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탈성장과 소박한 삶을 주장하는 라비의 사상이 자본주의와 과학 기술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에 과연 설득력이 있을 것인가? 라비를 비롯한 탈성장 주창자들이 탈성장을 역설할지라도 많은 이들이 탈성장에 대해 회의감을 가지는 것도 사실이다. 탈성장론자인 라투슈Serge Latouche가 지적하듯이 탈성장은 전혀 매력적인 말이 아니며 많은 이들이 이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 반응을 보인다.⁴¹⁾ 사람들은 흔히 경제 성장이 없는 사회는 부정적으로 간주한다. 특히 정치인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그들에게 탈성장 사회란 실패한 사회를 의미하다. ‘성장과 진보’라는 근대주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공고하기에 그 패러다임에 대한 저항이 무모해 보이는 것도 당연하다.

현대 사회가 생태 위기에 직면해 있을지라도 현대인이 물질적인 풍요를 포기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경제 성장과 생태 보존을 함께 추구하고 싶어한다. 만일 양자가 양립할 수 있다면 최선이다. 그러나 경제 성장과 생태 보존의 양립은 거의 불가능하다. 심층 생태학자 네스가 지적하듯이 “국민 총생산은 곧 국민 오염 생산 총계PNB=pollution nationale brute”이다.⁴²⁾ ‘탈성장’ 주창자들은 무한한 경제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경제 성장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지구 생태계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라투슈는 이 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⁴³⁾ 일인당 국민 총생산액이 연 3.5퍼센트 증대하면 경제 규모는 300년 후에 1만 6천 배 증가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연 2퍼센트의 경제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연 2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면 2천 년 후에 경제 성장은 1억 6천만 X 10억 배가 증가한다. 만일 2천 년 동안 연 0.007퍼센트의 경제 성장률을 유지한다고

41) 세르주 라투슈, 양상모 역 (2010), p. 60.

42) Naess (2008), p. 303. ; 세르주 라투슈, 양상모 역 (2010), p. 55.

43) 세르주 라투슈, 양상모 역 (2010), pp. 54-55.

해도 경제는 100만 배 증가한다. 경제 성장은 화석 연료와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채굴 증가, 폐기물과 오염의 증가를 동반한다. 다시 말해 경제 성장은 생태계 파괴의 증가를 의미한다.⁴⁴⁾ 따라서 무한한 경제 성장은 생태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경제 성장이 계속되면 지구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적에 동의한다면, 그리고 인류에게 미래가 존재하기를 바란다면 탈성장 사회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탈성장 사회를 위해서는 물질적 풍요와 성장 중심의 소비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우리의 과도한 소비는 결국 ‘가이아의 복수’를 불러일으켰다. 미래의 큰 생태계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라비가 강조하는 ‘단순한 삶’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활 방식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V. 결론

자본주의 사회는 ‘성장’과 ‘이윤’을 목표로 삼는 사회이다. 대기와 수질을 오염시키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더라도 기업에 이윤이 늘어난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생태 보존보다 이윤 추구를 선택한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성장을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그 결과 더 많은 상품과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윤 추구를 위한 무한한 개발과 성장은 유한한 지구와 양립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성장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며, 성장을 향해 질주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맞대응할 수 있는 대안적인 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라투슈는 그 과정을 탈성장이라 부른다. 그에게 탈성장은 지구를 파멸로 몰아가는 ‘성장을 위한 성장’이라는 ‘사악한 논리’와의 철저한 단절을 의미한다.⁴⁵⁾

이러한 탈성장론의 아이디어는 기실 이미 이반 일리치Ivan Illich와 코르넬

44) 세르주 라투슈, 양상모 역 (2010), p. 55.

45) 세르주 라투슈 외, 안성현 역 (2021), pp. 62-63.

리우스 카스토리아디스Cornelius Castoriadis부터 존재해왔다. 그들이 발전시킨 탈성장 아이디어는 니콜라스 조르제스쿠-뢰젠이나 앙드레 고르를 거쳐 리카르도 페트렐라Riccardo Petrella와 세르주 라투슈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에게 이어져 왔다. 이들 탈성장론자들은 자본주의 체제가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성장을 위한 성장’을 비판하며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피에르 라비도 탈성장론자들의 관점에 동의하는 사상가로서 우리는 그를 탈성장론자로 규정할 수 있다.

라비는 라비는 아르네 네스처럼 정연한 생태이론을 제시한 사상가는 아니다. 그리고 그는 조르제스쿠-뢰젠이나 라투슈처럼 탈성장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한 사상가도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은 라비의 한계라고 지적할 수 있다. 라비의 주된 공헌은 전문적 학자로서의 기여가 아니라 생태 사상의 대중적 확산이다. 우선 그는 자신의 농장에서 다양한 실험을 거쳐 형성한 ‘농업 생태론’을 국내적으로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함으로써 생태계 보존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그는 탈성장 사회를 추구하면서 ‘소박함’과 ‘절제’의 가치를 강조한 책들을 집필하고 많은 강연을 통해 생태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였다. 그리고 그는 생태적 삶을 추구하는 다양한 단체들을 설립하고 주도함으로써 많은 이들을 새로운 문명을 위한 생태적 비전에 동참하게 하였다.

그의 ‘농업 생태론’과 그가 강조한 ‘소박함’과 ‘절제’는 모두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지니는 동시에 그가 구상한 탈성장 사회라는 대안 사회의 구성 요소이다. 그는 개인적으로도 ‘농업 생태론’을 실천하며 소박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았다. 라비는 농사를 짓는 한 가정이 1헥타르(약 3025평)의 농토만 경작할 것을 제안한다. 그것은 한 가정이 친환경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적당한 땅이 1헥타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소박한 삶에 내재한 가치인 ‘절제’는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행복한 절제sobriété heureuse’이다. 그는 삶의 기쁨이 있는 절제를 추구하였다. 그는 농부가 너무 힘겨운 농사일에 얽매어 살기보다 적절하게 휴식도 취하고 문화예술 활동도

병행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다. 실제로 라비는 농사를 짓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독서와 창작을 하였고, 부인과 다섯 자녀를 포함한 온 가족이 악기 연주를 배워 시골 마을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하였다. 과도한 생산과 과도한 소비를 하며 환경 공해를 유발하는 삶에서가 아니라 삶의 기쁨이 있는 절제를 통해 행복을 누리며 동시에 자연환경도 보존하는 라비의 삶은 분명 본받을 가치가 있는 삶이다.

참고문헌

- 김종철 (2022), 『발언1』, 서울: 녹색평론사.
- 피에르 라비 (2002), 길잡이 늑대 역 (2011),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 고양: 조화로운 삶.
- 세르주 라투슈 (2010), 양창모 역 (2015), 『탈성장 사회』, 서울: 오래된 생각.
- 세르주 라투슈 (2012), 정기현 역 (2019), 『낭비 사회를 넘어서』, 서울: 민음사.
- 세르주 라투슈 외 (2008), 안성현 역 (2021), 『탈성장』, 논산: 대장간.
- 제임스 러브록 (1995), 홍유희 역 (2017), 『가이아. 살아 있는 생명체로서의 지구』, 서울: 갈라파고스.
- E. F. 슈마허 (1993), 이상호 역 (2010), 『작은 것이 아름답다』, 서울: 문예출판사.
- R. 호이카스 (1972), 손봉호·김영식 역 (1987), 『근대과학의 출현과 종교』, 서울: 정음사.
- Eliade, Mircea (1983), *Traité d'histoire des religions*, Paris: Payot.
- Gorz, André (1977), *Ecologie et liberté*, Paris: Gallilée.
- Lenoble, Robert (1969). *Histoire de l'idée de nature*, Paris, Albin Michel.
- Naess, Arne (1995), "The Shallow and the Deep, Long-Range Ecology Movement," in Drengson, A. and Inoue, Y. (ed.), *The Deep Ecology Movement: An Introductory Anthology*, Berkeley: North Atlantic Publishers.
- Naess, Arne (2008), *Ecologie, communauté et style de vie*, Paris: MF.
- Rabhi, Pierre (2002), "Présentation de l'agroécologie par Pierre Rabhi en 10 points", in *Passerelle Eco*, n°9.
- Rabhi, Pierre (2005), *Graines de possibles, regards croisés sur l'écologie avec Nicolas Hulot*, Paris: Ed. Calmann-Lévy.
- Rabhi, Pierre (2007), *Terre-mère homicide volontaire*, Mercues: Le Navire En Pleine Ville.
- Rabhi, Pierre (2008), *Manifeste pour la terre et l'humanisme. Pour une insurrection des consciences*, Arles: Actes Sud.
- Rabhi, Pierre (2010), *Vers la sobriété heureuse*, Arles: Actes Sud.
- Rabhi, Pierre (2021), *Du Sahara aux Cévennes : itinéraire d'un homme au service de*

la Terre-Mère, Paris: Albin Michel.

René Descartes (1966), *Discours de la méthode*, Paris: GF.

Wezel, Alexander et als. (2009), “Agroecology as a science, a movement and a practice. A review”, *Agronomy for Sustainable Development*, 29: 503 - 515.

【Abstract】

A Study on the Ecological Ideology of Pierre Rabhi

Song, Tae-Hyeon

This paper studies the ecological ideas of Pierre Rabhi, one of France's most influential environmental activists. Since this study is the first paper to deal with Rabhi in Korea, outlines the process of forming Rabhi's life and ideas. Later, we examine the 'agroecology' he proposed based on the "Mother Earth" concept while criticizing modern mechanical nature views and conventional farming methods. Next, we examine what Ravi's diagnosis of modern civilization that caused the ecosystem crisis and what "degrowth" and "simple life" are suggested as prescriptions for it, and whether his perspective is persuasive. Through this study, we present the limitations of Rabhi's ideas and their contributions. He has a limitation that he is neither a thinker who presented a clear ecological theory nor a thinker who systematically established the theory of degrowth. Rabhi's main contribution is to spread 'agroecology'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internationally, and to meet the public through books and lectures, and to establish and lead organizations that pursue ecological life, which led many to join the ecological vision for a new civilization.

[Key Words] Pierre Rabhi, agroecology, degrowth, simple life, happy moderation

논문 투고일: 2022. 09. 22

심사 완료일: 2022. 10. 17

게재 확정일: 2022. 10. 17

